

고규홍의 '나무생각'



제 빛깔과 향기를 되찾은 늙은 뽕나무

마을 앞들의 나무가 재산과 권력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다. 비단을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던 농경문화 시절의 이야기다. 비단을 짓기 위해서는 누에를 치야 하고, 누에를 살하게 키우려면 먹이를 넉넉히 먹여야 했다. 누에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뽕나무 잎을 얻기 위해 키우는 뽕나무는 그 시절, 부(富)의 상징이었다. 너른 논보다 앞들의 무성한 뽕밭이 한 마을의 풍요를 보여주는 자부심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뽕나무 키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왕비는 궁궐에서 뽕나무를 키우면서 해마다 봄이 오면 뽕나무 앞에서 친잠례를 치렀다. 양잠(養蠶)을 격려하는 왕실 차원의 예식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왕비의 손길이 닿았던 뽕나무는 가뭇없이 사라졌지만, 왕비가 친잠례를 치르던 뽕나무의 후계목으로 여겨지는 뽕나무 한 그루가 지금도 창덕궁에 그 흔적으로 남아 있다. 우리 옛 농경문화의 중요한 지취로 기억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다.

뽕나무는 그 열매인 오디가 소화를 잘 시키는 바람에, 오디를 많이 먹으면

방귀를 뽕뽕 끼게 된다 해서 '뽕'나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얻게 됐다. 뽕나무는 또 남부상열지사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뽕나무가 무성히 자란 뽕밭이 청춘 남녀의 밀회 장소로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뽕잎을 따기 위해 키우는 뽕나무가 잎을 딸 수 없을 만큼 높이 자라면 농가에서는 쓸모를 잃는다. 이 때문에 뽕나무는 높게 자라지 못하도록 여덟 때부터 나뭇가지를 잡아 주며 키웠다. 생명력이 왕성한 뽕나무는 위로 뻗을 에너지를 사방으로 더 넓게 펼쳐며 자랄 수밖에 없다. 결국 뽕나무는 가지를 옆으로 무성하게 뻗으며 자란다. 여러 그루의 뽕나무를 키우는 뽕나무 밭은 무성한 가지 덕에 밭갈이에서는 뽕밭 안쪽의 사정을 살필 수 없게 된다. 밀회를 즐길 이렇다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시절에 뽕밭은 당연히 남녀상열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의 뽕나무는 높게 자라는 나무다. 강원도 정선군정양외고택, '고학규 가옥' 대문 곁에는 무려

25미터까지 솟아오른 한 쌍의 뽕나무가 있다. 뽕잎을 따기 위해 심은 나무라기보다 한 가문의 상징으로 소중히 보존한 나무이다 보니, 천성대로 높이 자란 뽕나무다. 따지고 보면 뽕나무는 자신의 본색보다 사람에게 의해 지어진 이미지가 더 많은 나무였다.

이달 초에 경북 상주의 뽕나무 한 그루가 창덕궁의 뽕나무에 이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절차에 따라 한 달의 예고 기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되면, 살아 있는 생물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최고의 지위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두 번째 뽕나무가 된다.

새로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높이가 10미터나 되고, 사방으로 펼친 나뭇가지의 폭이 무려 16미터에 이르는 매우 큰 나무다. 수령은 300년을 넘긴 것으로 짐작된다. 워낙 큰 나무여서 뽕잎을 따기 위해 심어 키웠던 나무라기보다는 마을의 상징으로 정성 보존한 나무로 보인다. 예전엔 상주 지역이 양잠이 번성했던 지역이고, 이 지역의 모든 뽕나무를 대표할 만큼 아름답

고 큰 나무라 해서 지역의 상징이 된 것 같다. 나무 앞에는 상주 지역의 군수를 지낸 최병철(崔秉勳)이라는 이가 나무의 가치를 오래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1935년에 세운, '명상(名桑)기념비'가 세월의 흔적을 안고 여태 남아 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저마다의 본성과 특징이 있다. 나무도 그렇다. 큰 키로 자라는 전나무나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낮은 키로 무성하게 자라는 개나리나 진달래도 있다. 진한 향기를 품고 피어나는 꽃이 있으면, 향기 없이 담백하게 피어나는 꽃도 있다. 솔하게 많은 살아 있는 것들이 빛어내는 자기만의 빛깔과 향기는 제각기 서로 다르다. 밝고 어두움이 있는가 하면 짙고 얇음이 있게 마련이다.

뽕나무 역시 자기만의 빛깔과 향기가 있다. 그러나 뽕나무는 오랫동안 제 빛깔과 향기를 억누르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라면서 재산의 가치로, 혹은 남녀상열의 상징으로만 남았다. 늦게나마 제 빛깔과 향기를 간직한 한 그루의 뽕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건 현영할 일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정성껏 짚은 MRI의 가치



김종선 첨단우리병원 원장

나 CT검사로는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75세 할머니가 발에 고추를 심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이후 누웠다가 일어나기가 힘들고, 침이나 주사를 맞고도 호구가 없었다고 한다. 다른 병원에서 찍은 X레이상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MRI를 찍으니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있어 척추 성형술 시술 이후에 좋아졌다. MRI는 CT와 비교할 때 더 나은 해상도와 다방면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방사능 조사의 위험이 없다. MRI를 잘 못 찍으면 화절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다른 병원에서 허리 MRI를 찍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한 환자에게 다시 MRI를 찍어보라고 했다. MRI 영상에서 다른 병원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척추 디스크가 터져 생긴 탈출이 관찰됐다. 이 환자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터진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고 증상이 좋아졌다.

네 번째, 손목을 쓰면 아프고 쉬면 좋아지기를 반복하던 젊은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왜 처음부터 MRI 검사를 권유

하지 않았냐고 서운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실 MRI 수가가 고가여서 처음 진찰부터 권유하기는 힘들다. 타 병원에서 MRI를 찍어서 손목뼈 하나가 피가 안 통하는 키엔백 병으로 판정이났었다. 드문 질환이지만 지금은 손목 통증이 두세 번 정도 재발되면 MRI를 권유한다.

다섯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MRI를 못 찍겠다는 할머니를 무료로 찍어서 병원을 찾았던 적도 있다. 시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낫게 해주려니 답답했다. 검사에서 척추뼈에 고름이 차 있었다. 검사 안하고 약만 줬으면 척추뼈가 다 녹아서 수술도 어려울 뻔 했었다. 적절한 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결국 치료 비용을 아끼는 길이기도 한다.

여섯 번째, 허리가 아파서 우리 병원에서 계속 약을 타가시는 분이였다. 5년 전에 척추 협착증으로 필자가 허리 수술하고 증상이 좋아져서 등산도 즐기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약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복용약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불평을 했다. X레이상에 이상이 없어서 신경 주사를 시술해도 통증의 호전

이 없었다. MRI를 찍으니 허리에 압 전이가 있었다. 10년 전에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했었는데, 피 검사상 전이가 의심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위에 전이가 있는 지 못 찾았다고 했다. MRI가 전신 암 검사보다 정확한 경우도 있다.

일곱 번째, 엉덩이가 아프면 허리라고 관절 문제일 수 있다. X레이상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허리와 고관절 MRI를 동시에 찍으면 정확히 알 수 있다. MRI 촬영시 고관절을 찍지 않아 질병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데도 허리 수술을 하고 다시 찾아와서 고관절도 새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여덟 번째,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사타구니가 아프면 고관절의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고관절 뼈가 괴사되는 병을 의심하는데 일반 X레이나 CT로는 알 수가 없고, MRI를 찍어야 알 수가 있다.

MRI는 이렇게 다른 검사로 놓칠 수 있는 질병을 찾아주는 고마운 도구이다. 또한 환자의 아픈 부위를 자세히 검사하면 놓치지 않고 정확한 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 전문병원에서 적절한 상의를 하는 게 빠른 치료의 길이다.

기고

프레임 관점에서 바라본 광주·새만금공항



엄수원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게 접근할 수 있는나의 '발전'의 프레임으로 보면서 지자체별로 공항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공항이 많아지면서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공항 통·폐합이 필요하나 성사된 곳은 없고, 국내에서는 광주·무안 공항이 시도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 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1000만 명 이상 이용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인천 등 네 곳이며, 100만 명 이상 공항은 대구, 광주, 청주 등 세 곳 뿐이다. 그에 반하여 양양공항은 연 3만 7671명에 불과하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공항 통합을 '생존'에서 '발전'의 프레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설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새만금 국제공항의 설립은 불투명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목록에 새만금 공항의 신설이 포함되었다.

그런 와중에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와 전

남이 한 뿌리라고 말하면서도 '생존권'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다 보니 통합 진척이 없이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는 발전의 프레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만금과 광주 공항의 통합도 검토할 만 하지 않을까 한다. 인구감소의 시대적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호남 지역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연계해 '발전의 프레임'으로 보자는 것이다. 지역 간 상생 발전이라는 방향에서의 프레임 확대이다. 호남 광역권 성장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새만금 공항 건설 기간이 2028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졌다. 새만금은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중국과 신남방 지역을 연결하는 탁월한 지리적 여건과 체류형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새만금의 문화·관광 자원이 광주시라는 대도시의 교류 인구와 산업 자본과 융합될 경우 경제·교류 인구 증대와 함께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간 연계가 된다면 광주-새만금-전주를 잇는 광역 문화벨트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

다.

더구나 공항 소음 문제를 지역 후퇴가 아닌 발전의 계기로 삼는 모델이 속속발표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물류 및 인적 이동, 문화 교류에 공항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존 카사다(John Kasada) 교수가 공항을 배후에 두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공항을 중심으로 하여 인프라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에어로트로 폴리스(Aerotropolis) 개념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항(Aero)와 도시(Metropolis)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최근 인천 국제공항 주변에 공항 복합 도시 건설 계획, 중국 장저우의 공항 경제 지구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에 물류 시설과 연구개발 센터, 전시회장, 공장 등을 배치하는 브랜드 프로젝트 전반적인 매력은 높이고 있다.

세계 도시사(都市史)를 살펴보면, 도시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그 시도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도시는 번영하였지만 거부한 도시는 쇠락한 역사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社說

'화약고' 동부권 산단 안전 근본 대책 마련을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폭발과 원료 유출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지역 산업 생산의 핵심 축인 산업단지가 치명적인 안전사고 빈발로 인해 '화약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15년 이후 5년간 광양 국가산업단지 가 위치한 광양에서는 모두 26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만 그제 다섯 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폭발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다쳐 병원에서 숨지기도 했다. 지난 7월에도 정전 사고로 불꽃과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광양 국가산단에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120개가 넘는 기업들의 공장이 가동 중인데도 비상 상황 때 안전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중대 재해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 공장 기공식 광주형 일자리 닷 올렸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기공식이 오늘 광산구 빛그린산단에서 열린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은 빛그린산단 1공구 60만4508㎡의 부지에 3개의 생산 건물과 13개의 부속 건물로 구성되는데, 내년 초 자동차 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1년 4월 완공된다. 이어 연간 1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설비 라인을 공장 건물에 구축한 후 시험 생산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부터 경쟁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할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에는 광주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해서 지역 기업 등 35개 기관과 기업이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시는 자동차 공장이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 직간접적으로 지역에 최대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

여수 국가산단 역시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대부분인데도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곳에선 광양 산단과는 달리 5년 전 정부 부처와 전남도·여수시 등 아홉 개 관련 기관이 컨트롤타워 격인 '여수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개별 법에 따라 사고 처리와 사후 관리를 하는 바람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산단 사고는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기업 역시 방재 훈련을 강화하고 노후 설비 개선을 위한 투자를 서두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방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로 낮추고 나머지를 사회적임금(복지 제공)으로 매우는 광주형 일자리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첫 삽을 뜨기까지는 그동안 많은 곡절이 있었다. 지금도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간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노동총측은 지난 9월 광주시에 공장 시공사 선정 및 시민 자문위 구성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었다. '선언적인' 대책이나 답변뿐이라며 사업 보이콧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자동차 공장 설립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지만,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 만큼 광주시나 노동계의 완전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누구나 공감하는 지방정권인' 대책이나 답변뿐이라며 사업 보이콧 결정을 내렸다.

이런 자동차 공장 설립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지만,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 만큼 광주시나 노동계의 완전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누구나 공감하는 지방정권인' 대책이나 답변뿐이라며 사업 보이콧 결정을 내렸다.

無等鼓

1998년 개봉한 영화 '가타카'에서는 미래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주인공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신의 아이' 빈센트. 그의 운명은 심장 이상에 범죄자의 가능성을 지니고, 31세에 사망하는 것이었다. 좌절한 부모는 시험관 수정을 통해 완벽한 유전인자를 가진 안톤을 출산한다. 안톤에게 항상 뒤지며 열등감을 겪던 그는 17세가 되던 해, 바다수영 시험에서 이겨 동생을 구한 뒤 가족 곁을 떠난다.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신분을

'완벽' (完璧)이라는 말은 사마천 시기 열전의 '염파 인상여 열전'에 나오는데, 조나라의 해문왕이 얻은 화씨지벽(和氏之璧)의 완전무결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초나라 옥(玉) 감정사 화씨가 자신의 양말을 희생해 가면서도 왕에게 진상한, 옥돌에서 다듬은 귀중한 구슬. 강대국인 진나라가 이를 옥신내 거것으로 15개의 성(城)을 주겠다고 강탈하려 하자 조나라의 인상여가 "완벽에도 흠집이 있다"며 돌려받은 뒤 무사히 조나라로 가

완벽한 거짓

속이며 '완벽한' 이들과 경쟁을 이겨 내고 자신의 꿈인 우주여행에 나선다는 줄거리다.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은 2016년 출간한 '완벽에 대한 반론'에서 "생명공학의 발전은 다양한 질병 치료의 길을 열어 주기도 하지만 유전적 특징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것을 옹인하는 어두운 우려를 던져 준다"고 지적한다. 승자 독식의 치열한 경쟁에서 유전적인 결함을 없애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작'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수법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기 어렵다. 따라서 완벽하다 고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거짓인 셈이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인간이 만든 법을 기준으로 범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신들의 완전무결함을 과신하고 있는 듯하다. 검찰만이 견제와 감시가 없는 유일한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완수돼, 검찰이 국민의 곁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윤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